

2019년 3분기

한화생명 실적발표회

2019. 11. 13(수)

—
한화생명 경영관리팀 IR파트



Disclaimer

본 자료의 2019년 3분기 결산 경영실적은 K-IFRS의 별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공 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수치 중 일부는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Key Financials
2. 수입보험료/신계약 APE
3. 채널별 신계약 APE
4. 유지율/정착률
5. 당기순이익/보험이익
6. 손해율/사업비율
7. 자산운용
8. 채권/대출 포트폴리오
9. 준비금/건전성

Key Financials

- 전체 신계약 APE는 소폭 둔화했으나, 보장성 신계약 APE는 전년 동기 대비 9.8% 증가
- 당기순이익은 감소했으나, 부채 부담금리 개선세 지속 및 RBC 비율 확대

(십억원)	3Q19	3Q18	YoY
수입보험료	3,045	3,076	△ 1.0%
신계약 APE	433	443	△ 2.3%
보장성 신계약 APE	268	244	+9.8%
손해율	81.5%	75.8%	+5.7%p
사업비율	16.6%	15.7%	+0.9%p
운용자산이익률	3.30%	3.78%	△0.48%p
부담금리	4.54%	4.68%	△0.14%p
당기순이익	61	141	△56.7%
RBC	224.8%	221.6%	+3.2%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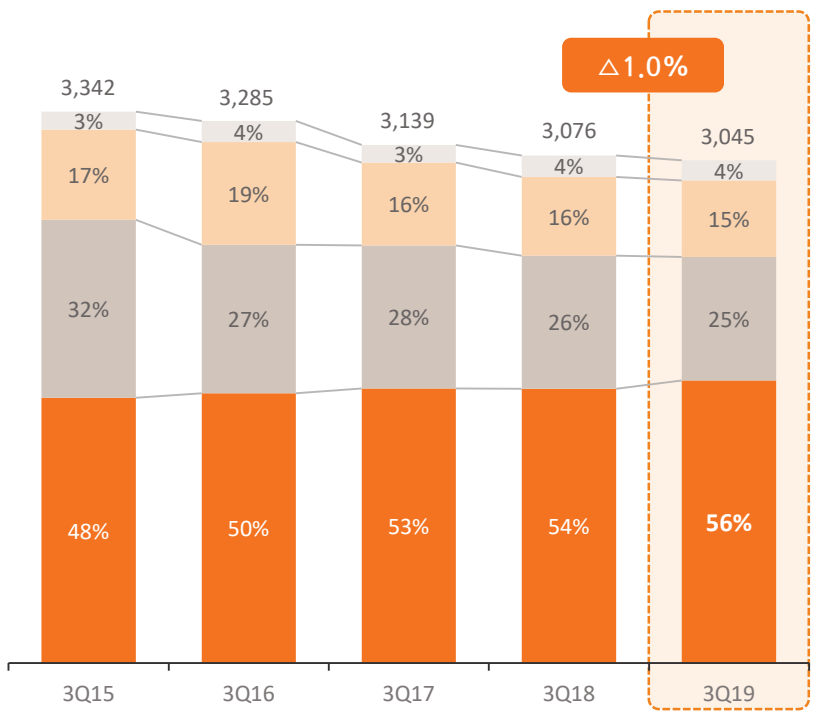
수입보험료/신계약 APE

- 보장성 수입보험료 비중은 업황 둔화에도 56%로 증가
- 전체 신계약 APE는 2.3% 축소된 반면, 보장성 신계약 비중은 62%까지 확대

수입보험료

(십억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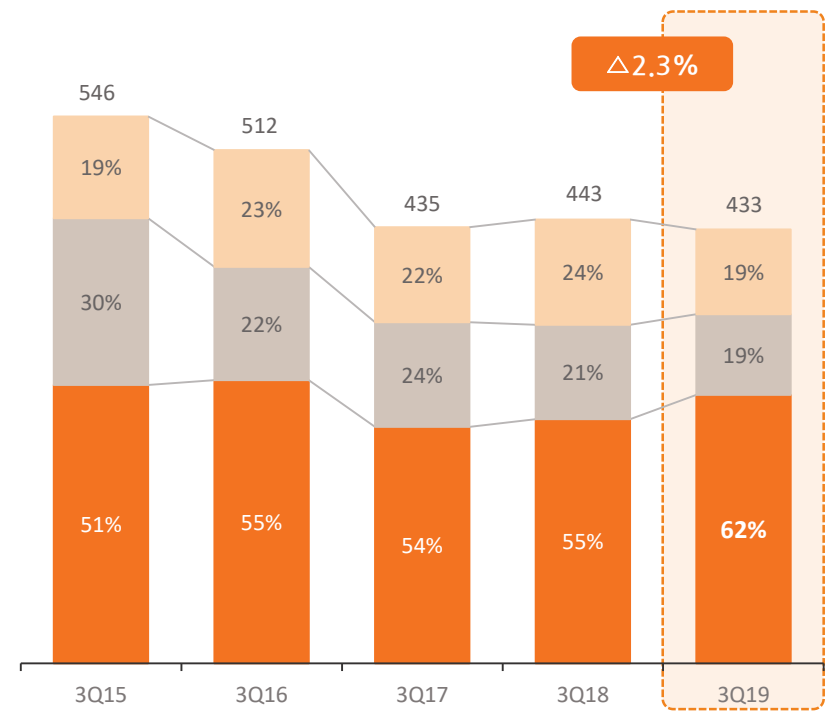
■ 보장 ■ 연금 ■ 저축 ■ 퇴직



신계약 APE¹⁾

(십억 원)

■ 보장 ■ 연금 ■ 저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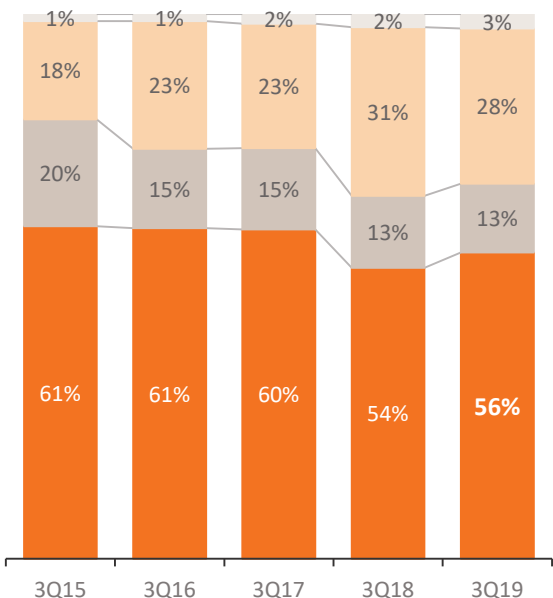
Note: 1) APE(Annualized Premium Equivalent) : 연납화보험료

채널별 신계약 APE

- 안정적 수익기반인 FP채널 중심의 판매전략 유지
- 보장성 신계약 APE의 채널별 비중은 FP채널 91%, GA채널 77% 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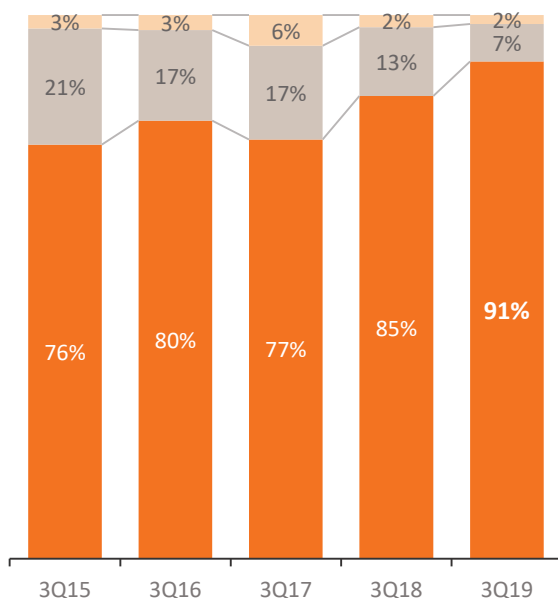
채널별 신계약 APE

■ 전속채널 ■ GA ■ 방카 ■ 기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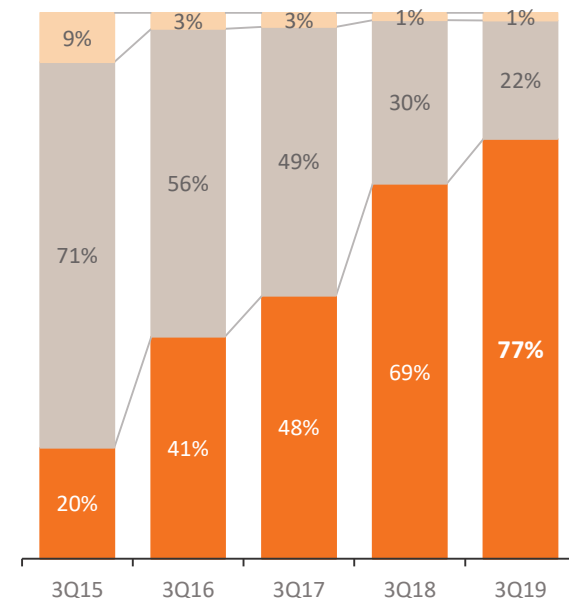
FP채널 상품별 판매 비중

■ 보장 ■ 연금 ■ 저축



GA채널 상품별 판매 비중

■ 보장 ■ 연금 ■ 저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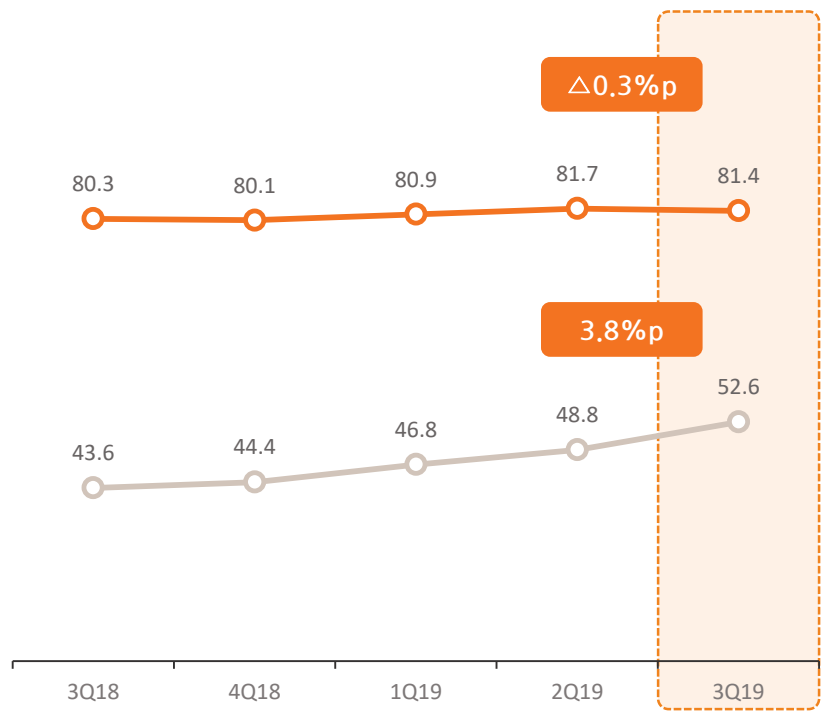
Note: FP(Financial Planner)
GA(General Agency)

유지율/정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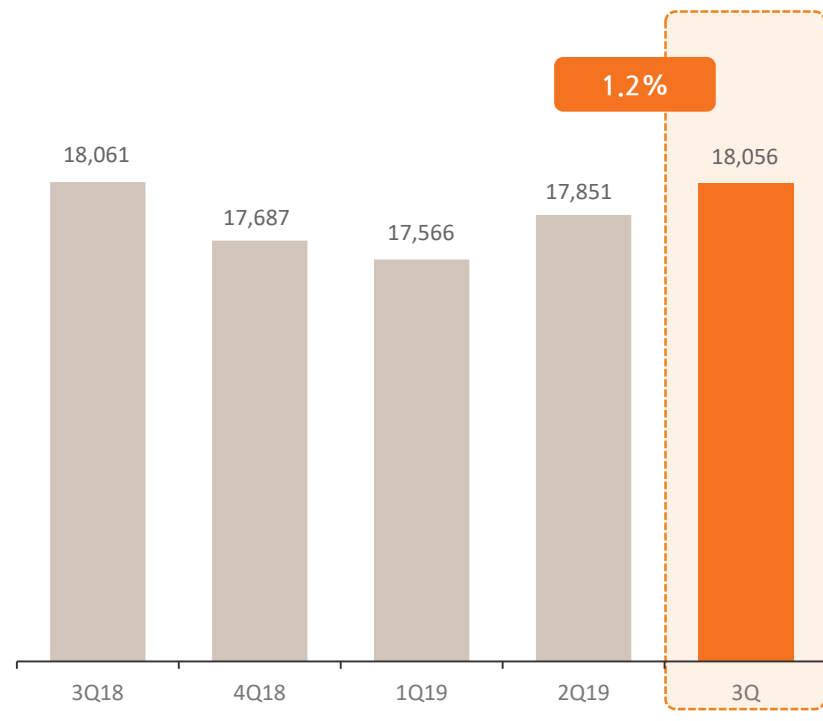
- 13회차 유지율은 0.3%p 둔화되었으나, 13차 정착률은 3.8%p 개선된 52.6% 달성
- FP 인원 수는 전분기 대비 1.2% 증가

유지율¹⁾/정착률²⁾ (%)

○ 13차 정착률 ● 13회차 유지율



FP 인원 수 (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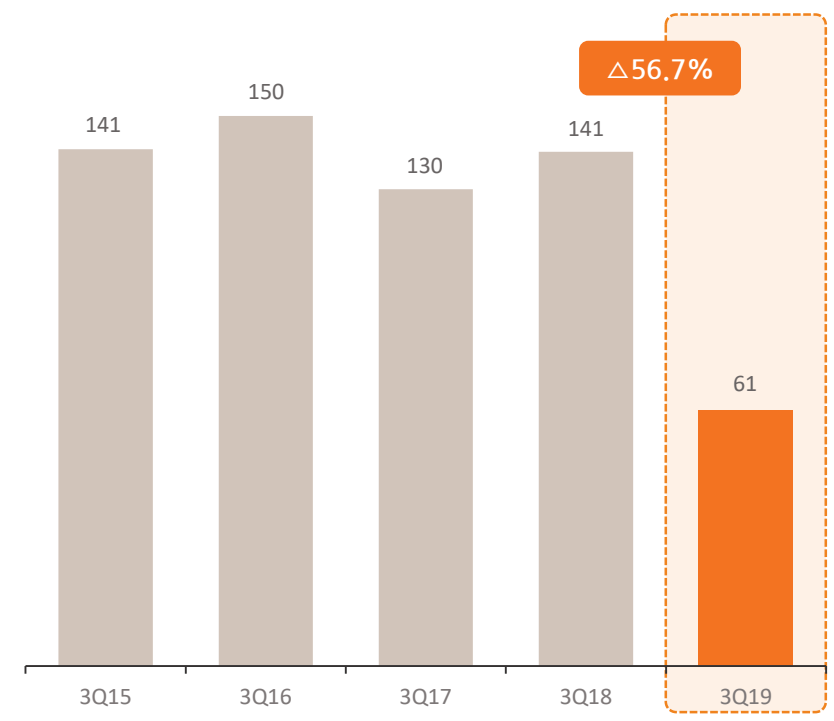
Note: 1) 전체 채널 기준 유지율
2) 전속FP 기준 정착률

당기순이익/보험이익

- 당기순이익은 저금리 기조 지속 및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둔화
- 보험본연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.2% 하락했으나,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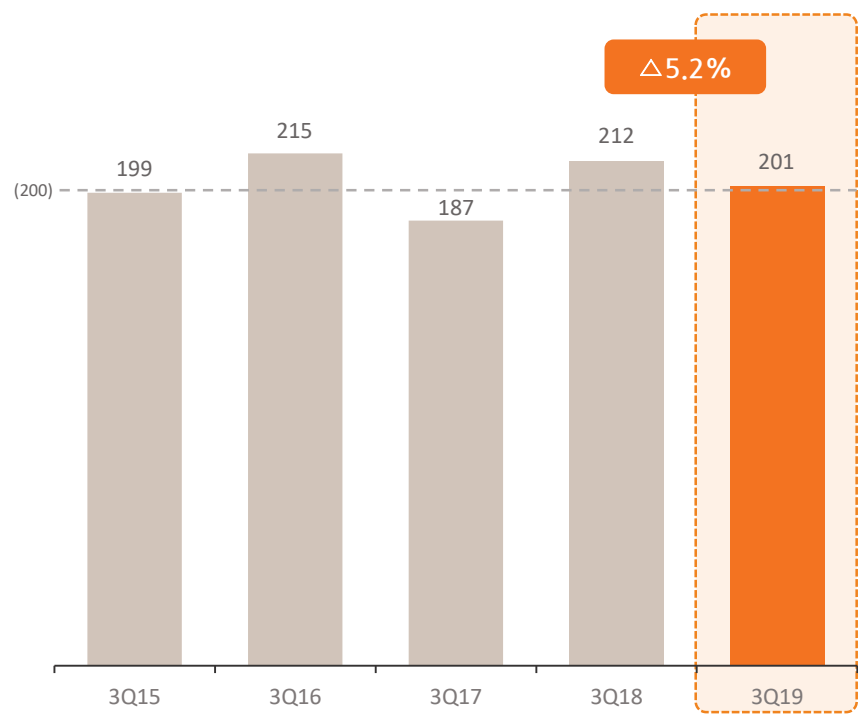
당기순이익

(십억 원)



보험이익¹⁾

(십억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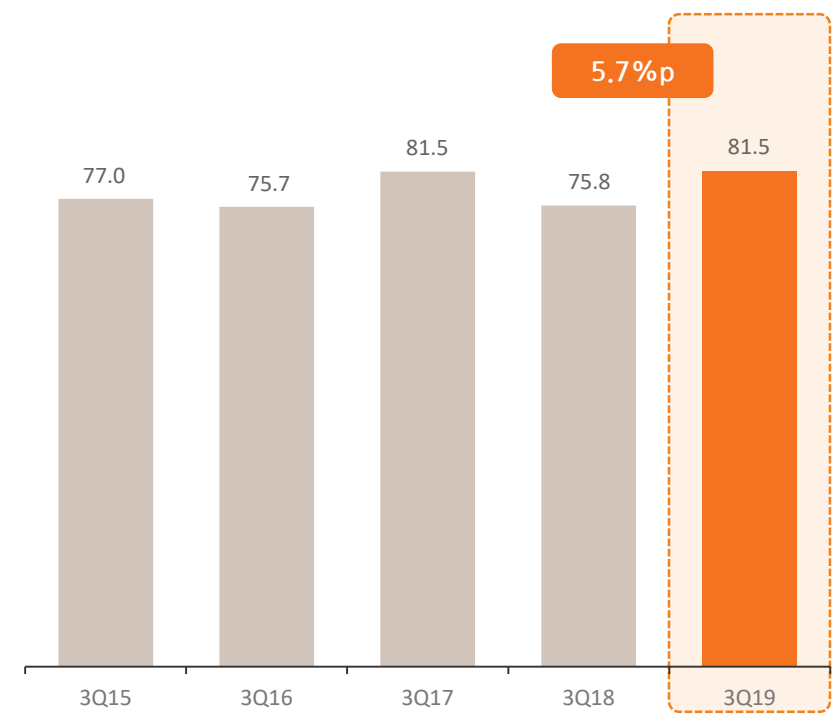
Note: 1) 세전이익 기준

보험이익 = 사차이익 + 비차이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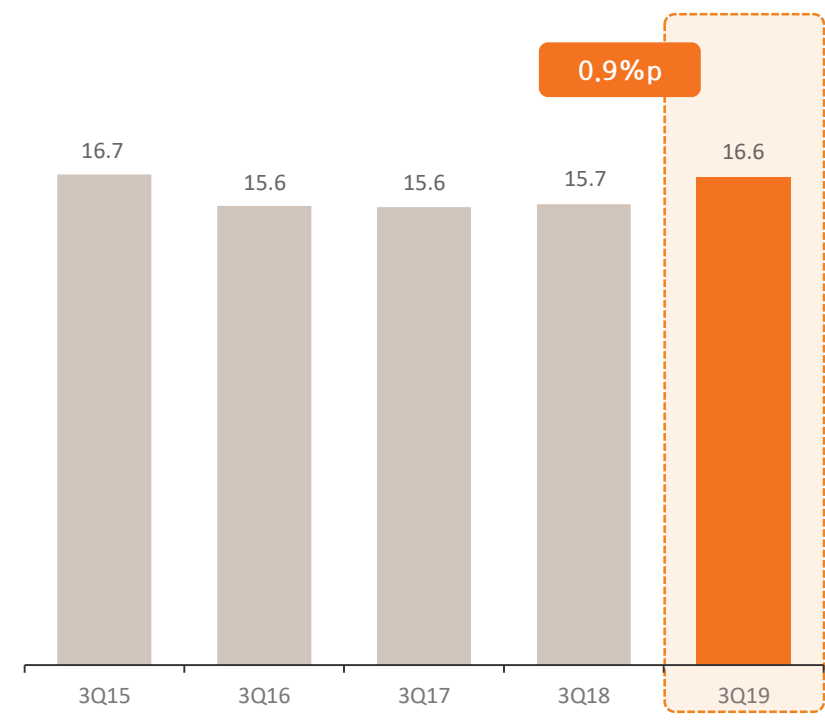
손해율/사업비율

- 손해율은 업계 전반적인 실손 보험금청구 증가 추세로 전년 동기 대비 5.7%p 상승
- 사업비율은 보장성 상품 판매 호조에 따른 판매비용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0.9%p 확대

손해율¹⁾ (%)



사업비율²⁾ (%)



Note: 1) 손해율 = (위험관련지급보험금 - 위험관련준비금) / 위험보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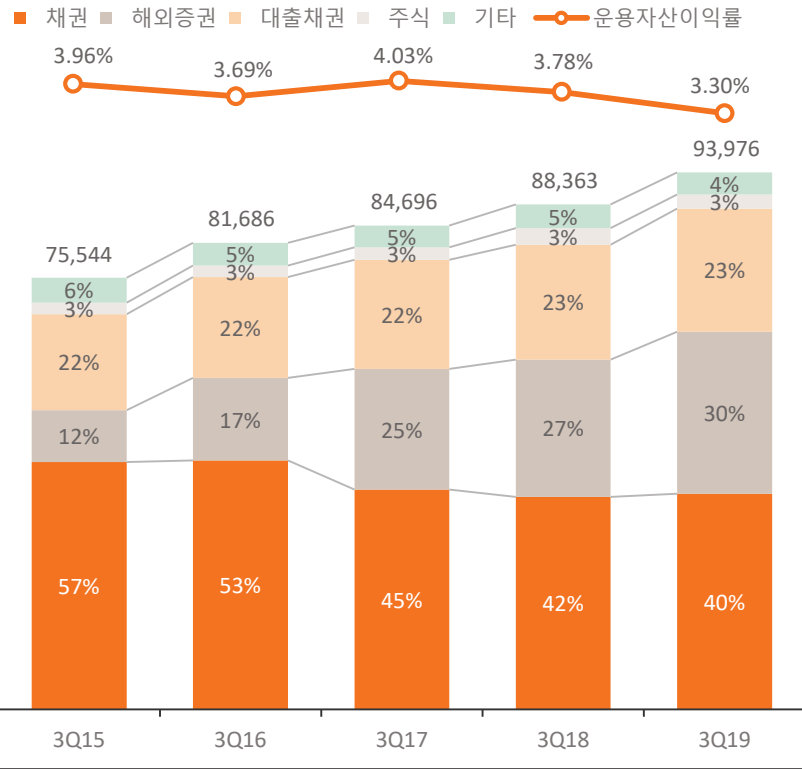
2) 사업비율 = 실제사업비 / 조정수입보험료

조정수입보험료는 일시납의 1/10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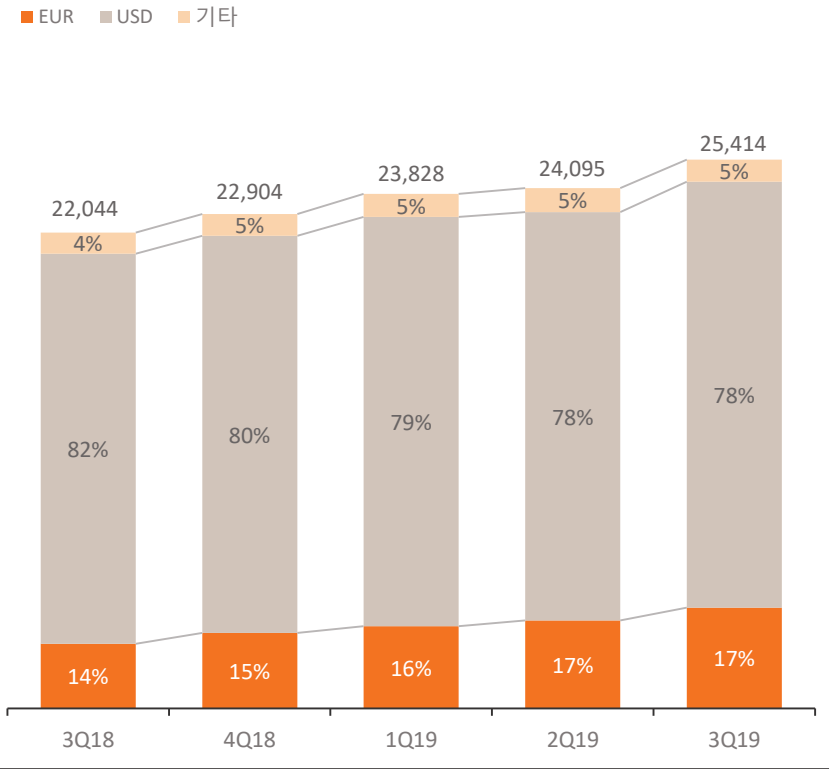
자산운용

- 운용자산이익률은 저금리 지속 및 전세계적인 금융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3.30%로 둔화
- 환헤지 비용 관리를 위한 선진국 중심의 통화 다변화

운용자산 및 운용자산이익률¹⁾ (십억 원)



통화별 해외채권 (십억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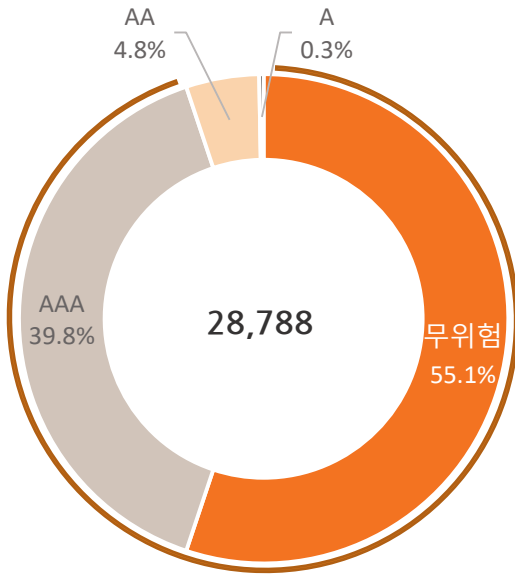
Note: 1) 일반계정운용자산기준

채권/대출 포트폴리오

- 국내 AAA 등급 이상 95%, 해외 A 등급 이상 95%의 안정적 채권 포트폴리오 구축
- 안정적인 대출 포트폴리오 운용

국내채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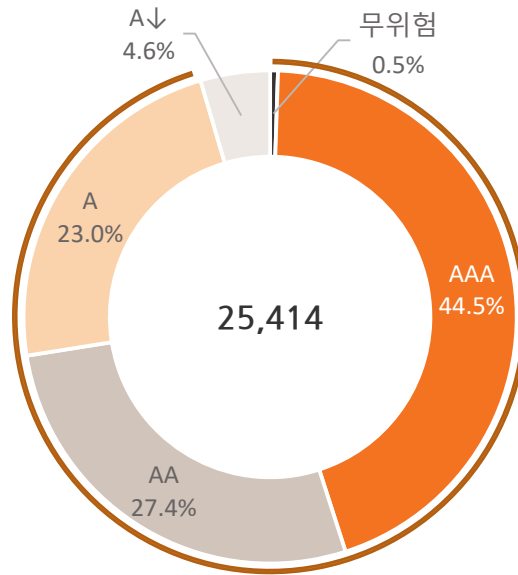
(십억 원)



AAA ↑ 95%

해외채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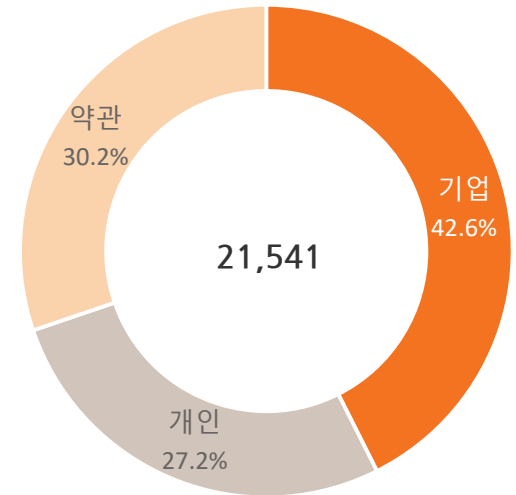
(십억 원)



A ↑ 95%

대출 포트폴리오

(십억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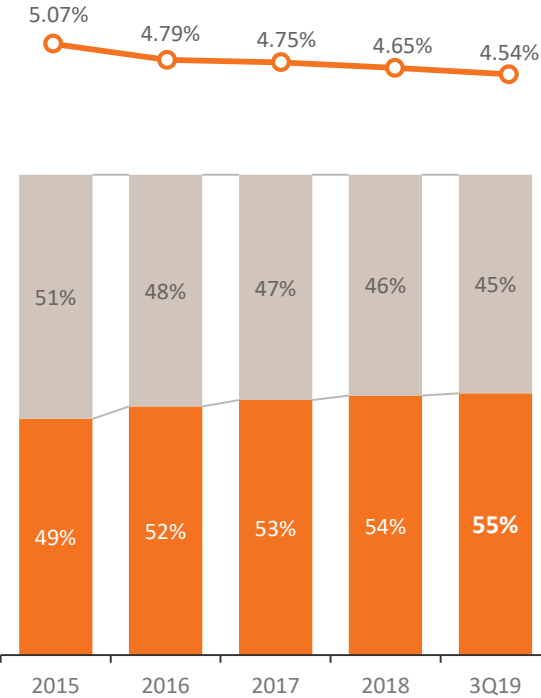
Note: 국내/해외 채권 포트폴리오: 채권형 수익증권 및 기타유가증권 제외

준비금/건전성

- 부담금리는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만기도래 및 금리 변동형 상품 비중 확대로 개선세 지속
- RBC비율은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익 증가 등으로 224.8% 기록

책임준비금 및 부담금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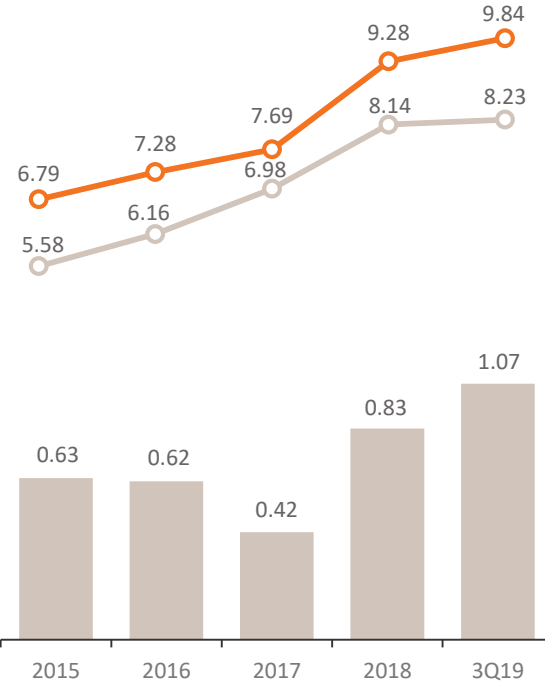
■ 변동형 ■ 고정형 ○ 부담금리



듀레이션¹⁾

(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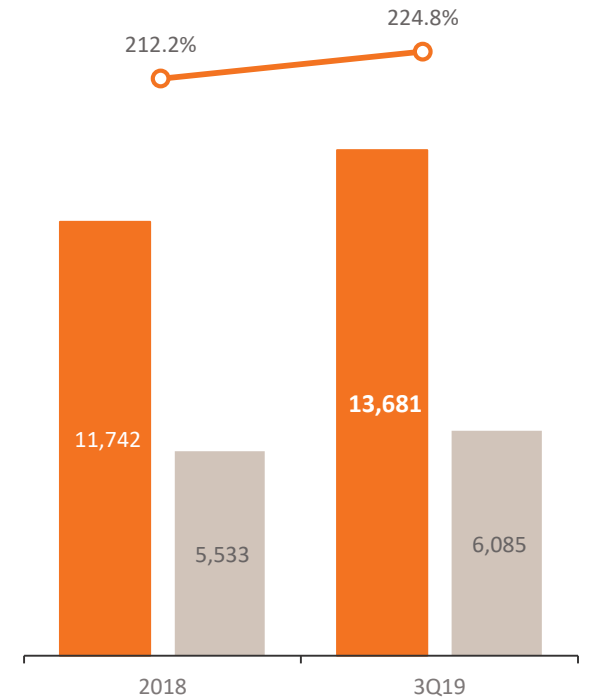
■ 듀레이션 갭 ○ 자산 ○ 부채



RBC비율²⁾

(십억 원)

■ 지급여력 ■ 지급여력기준 ○ RBC 비율



Note: 1) 듀레이션 갭 = (자산듀레이션 - 부채듀레이션) X (부채금액/금리부자산금액)

2) 연결 RBC 기준

감사합니다

—
한화생명 경영관리팀 IR파트

이 종목의 더 많은 IR정보 [확인하기](#)

IR GO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.